

현대패션에 나타난 디지로그(Digilog)에 관한 연구

김 생 자* · 박 명 희**

건국대학교 예술문화대학 의상학과 강사* · 건국대학교 예술문화대학 의상학과 교수**

A Study on the Reflection of Digilog in Contemporary Fashion

Sang-Ja Kim* · Myung-Hee Park**

Instructor,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투고일: 2010. 10. 28, 심사(수정)일: 2011. 2. 1, 게재확정일: 2011. 2. 1)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the idea of digilog for fashion; it would help to conclude the uncertain mixed-phenomena and words as a neologism and find a fundamental concept that would be a reference for a lot of uncertain new words that have been occurring even this year. Furthermore, this research is aimed at analyzing how digilog has been reflected on the contemporary fashion and directing the ways towards the future of fashion. The digilog fashion design is the expression of a combination of opposite extremes, that is to say the combination of a paradoxical mix and directly-opposed elements. The outward expression of fashion design with digilog can be classified into several ways. First of all, it tends to use the elements of paradoxical expression; for example, applying high-technology to express a primitive and natural material. The analog expresses unprocessed. Secondly, using high-tech machine to express the texture of handicraft or rough embroidery. Lastly, digital printing(DTP) is applied to enlarge the several or the whole parts of a natural object or sensitiv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side view of the contemporary fashion with digilog delineate followings; it is the attitude that claims to go back to the past and accepts the combination of nature and high-technology to get calmness in the rapidly changing modern world. And it is the will to fly from the utterly exhausted reality through the recurrence of the past when there used to be a lot of energies and used to live in affluence.

Key words: analog(아날로그), digilog(디지로그), digital(디지털), handicraft(수공예적인), paradoxical(역설적인), primitive(원시적인)

I. 서론

유비쿼터스 디지털 기술은 비단 예술 뿐 만 아니라 삶의 양식전반에 걸쳐 문명화 된 모든 영역에서의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했다. 전문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휴대전화로 쉽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책이나 영화, 때로는 공연, 전시 관람까지 할 수 있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사회가 급속하게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불안감과 불확실성의 가중으로 인한 나아갈 방향을 놓치고 있다. 첨단 전자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경쟁이 전개 될수록 인간 본질에의 관심과 이해가 중요해지고,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도구를 더욱 그리워함과 동시에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그것들로부터 마음의 안정과 평화로움을 찾게 되었다. 이는 결국 디지털 사회의 아날로그 감성 문화가 다시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 변화의 키워드로 이어령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문화적 관점에서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의 합성어인 디지로그(Digilog)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현대 사회가 디지로그로서 어떠한 문화적 관점으로 정의되는가? 그렇다면 디지로그가 어떻게 패션과의 접목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연구의 동기 되었다.

테크노 휴머니즘 시대에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디지로그의 개념을 패션에 연관 지어 해석하고, 패션 사이클에서 퓨처와 하이테크, 미니멀 등을 구조적인 디지털(테크놀러지)로 빈티지와 레트로 등은 감성적인 측면의 아날로그(네추럴리즘)로 보여진다. 이렇듯 양극화된 것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서로 믹스된 현상 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컨셉들이 서로 믹스 또는 중첩되면서 불분명한 개념, 컨셉들이 패션제품 디자인에 나오면서 많은 패션정보사에서 트위터, 믹스, 셰이크업 이라는 새로운 용어들을 확실한 분석 및 구분 없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사이클에서 모호한 믹스현상을 신중용어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과 2010년 이후 신중 컨셉이 새로이 나타

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로그'의 정의를 내려주고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테크노 휴머니즘 시대라는 시대적 조건하에 패션 트렌드 및 디자인 제품에서 디지로그(Digilog)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적용되었는지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테크노 휴머니즘 시대의 디지로그 현상이 패션을 주도하는 중요한 문화적 현상임을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의의는 21세기 테크노 휴머니즘 시대의 패션에 나타난 디지로그(Digilog)의 외적표현과 내적의지를 알아보고 관련업계의 마케팅 전략과 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자료로서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현대패션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미래패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또한 그 의의와 목적을 가진다.

연구방법은 첫째, 제품디자인과 광고디자인에서 출현한 디지로그 디자인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테크노 휴머니즘 시대의 문화의 전반적으로 보이는 디지로그 트렌드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패션에 나타난 디지로그 특성들을 고찰하고, 디지로그가 현대패션에 미치는 영향력과 패션분야에서만 나타나는 디지로그의 특수성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테크노 휴머니즘 시대에 변화되는 디자인 환경 속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지목된 '디지로그'가 패션을 통해 어떠한 개념과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인접분야의 선행연구, 문헌을 통한 이론적 연구와 시각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사진 자료 분석에 의한 실증적 연구는 국내외에 출간 및 발표된 트렌드, 마케팅, 예술 및 디자인관련 문헌과 정기 간행물, 패션관련 서적이나 논문, 학술지를 통해 테크노 휴머니즘시대의 중심문화코드로서의 디지로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한다.

현대패션에 나타나 디지로그의 감성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위한 연구 범위는 디지로그라는 용어가 2006년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패션에 있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디지로그 컨셉이 보이는 것은 2008년부터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2008년 S/S이후부터 2010년 S/S시즌까지로 한정하였다.

II. 일반적 고찰

1.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명확성과 한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으로 정한 '디지로그'와 '디지로그 패션디자인'의 용어를 정의함과 동시에 관련어인 '디지털'과 '아날로그' 용어를 또한 정의 하였다. 디지로그는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이 결합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라는 말처럼 오늘날에는 서로 다른 개념을 결합시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혼성어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¹⁾ '아나디지(Anadigi)'나 '디지로그'도 바로 새로운 혼성어(portmanteau)이다.²⁾ 디지로그(Digilog)는 2006년 이어령 교수가 현재의 문화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이후 보편화된 개념으로³⁾, 일반적 정의는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의 합성어를 뜻하며, 서로 상대되는 뜻을 가진 두 개의 개념을 결합한 용어로 IT시대를 대표하는 디지털과 자연과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아날로그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 연구의 디지로그 용어의 정의는 외적 구성요소 측면의 하이테크놀러지, 기술적 의미, 재질의 변화, 형태를 포함하는 디지털과 내적 가치 측면의 아날로그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 감성, 과거 향수의 정서, 손때의 정성스러움과 따뜻함이 담긴 복고 트렌드, 자연(Nature),정(情)을 느끼는 감성 등 내면의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내추럴리즘 등의 인간적이고 따뜻함과 정겨움, 그리움의 정서를 포함한 아날로그적 감성의 융합 또는 결합을 나타내는 용어로 정의 하였다.

본 연구의 디지로그 패션 디자인 용어의 정의에 앞서 디지로그 관련어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일반적 정의와 본 연구에 있어서의 정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라 하면, 전통적 제작방식의 형식을 뺀 것을 아날로그 라고하고, 현대 과학의 산물인 테크놀러지에 영향을 받은 것을 디지털이라 말할 수 있다.

디지털의 일반적 정의를 보면 디지털(Digital)은 손가락의 폭으로 길이 혹은 단위를 측정하거나 숫자를 꼽아서 계수화 하는 'digitus finger'의 어원에서 출발 하였으며, 현재는 아날로그와 대응되는 의미로

서 전자기기 등의 자료를 인식라고 저장하는 방식을 뜻한다. 디지털은 '0과 1'의 조합, 혹은 'on.off'라는 부호의 전환으로 정보를 표시한다. 본 연구에서의 디지털은 많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이루어지고 복제와 삭제 등이 가능한 것과 정형화 된 틀처럼 제어된 데이터 작업을 통한 한 번의 작업, 기계 주의적 딱딱한 모습과 차가운 속성, 구조적인 것으로 정의 하였다. 예를 들면 사진, 비디오, 컴퓨터 영상물은 이러한 것들은 쉽게 만들고 삭제 버튼 하나로 쉽게 없앨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프린팅 작업은 정형화 된 틀처럼 제어된 데이터를 가공해 아날로그 방식인 실크스크린 작업에서 여러 번의 수작업을 걸쳐서 얻을 수 있는 작업의 결과물을 유사한 근사치를 한 번의 작업으로 만들어 내기에 용이하며,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현존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창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을 창출하기도 한다.

아날로그의 일반적 정의는 디지털 이전의 기술이나 시스템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단순한 정의 차원이 아니라, 디지털의 기계적인 부분 및 과학적인 부분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아날로그는 디지털이라는 큰 흐름 속에 존재하는 정서적이고 인간적인 주제, 즉 내적인 가치로 존재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아날로그는 자연(Nature), 정(情)을 느끼는 감성, 그리움, 정성과 노력의 감성 등으로 정의 하였다. 그것은 암시적이고 모호한 성격에서 나오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인간적이고 따뜻함과 정겨움, 그리움의 정서를 포함한다.⁴⁾ 그리움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앞서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현대인들에게 촌스럽고 지루해도 공감할 수 있는 과거의 문화가 향수가 되어 복고문화를 불러일으키며, 과거 화려하고 풍요로운 시절의 회귀 본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연(Nature)은 또 다른 개념으로 인간 역시 본래 자연이라는 뜻으로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므로 분리 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자, 자연과 인간이 가진 본성이며 자연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회귀본능으로서의 자연을 동시 추구하는 것으로 반영된다.⁵⁾ 정성과 노력은 컴퓨터와 하이테크놀러지가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노동과 정성의 수공예적인 기법의 흔적이 많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그것들을 통해서 제작과정에서 디자이너의 미세한 감정의 느낌과 희열을 느낄 수 가 있다.

본 연구의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개념을 바탕으로 '디지로그 패션디자인'의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디지털은 하이테크놀러지의 기술, 차가운 속성의 구조적인 것으로 외형적인 변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아날로그는 자연(Nature), 정(情), 그리움, 정성과 노력 등 내적인 감성을 내제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위의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양극화된 것들의 중간단계에 새롭게 보이는 것과 서로 믹스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나 개념, 결과물 등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디지로그 패션 디자인의 용어를 요약하면, 구조적인 하이테크놀러지의 디지털과 아날로그 감성의 극과 극의 이중적 결합의 중간단계나 역설적인(Paradox) 믹스, 상반된 요소의 결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표 1>로 정리 하였다.

2. 디지로그(Digilog)의 출현

디지털 시대의 급속한 변화는 불확실성을 가중 시키고, 디지털로 대표되는 정보화시대는 정보의 범람과 유티리티의 생활화 등으로 이미 성숙 단계에

도달했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진화의 징후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 제품이나 서비스를 아날로그가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틈새의 영역을 장악해 사회, 문화, 산업 전반에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보통신과 기술, 인간관계의 만남, 차가운 기술과 따뜻한 정(情)이 만나는 디지로그가 균형 있고 조화로운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대안에서 출현하기 시작 하였다.

지금 우리사회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고령자중 인터넷 사용자 30%가 넘고 선진국의 경우 고령자라 부르는 인구는 대부분 샐러리맨 출신이다. 고령인구도 디지털 기기 사용에 충분히 익숙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보다 아날로그 세대들을 위해 디지털 제품에 아날로그적 성격을 더하여 사용자간 장벽을 없애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들이 선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현대인들은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추억과 향수, 그리움은 아날로그적인 정서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해 주면서 동시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인간을 형성하기위한 대안에서 디지로그가 출현하게 되었다. 디지로그 자체가 더 이상 디지털과 아날로그 양분화가 아니라 그 두 기술의 융합⁶⁾ 즉, '상호 보완'관계로써 대중화 되면서 여러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현대인들은 최첨단 디지털 시대의 살고

<표 1>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로그 패션디자인의 조작적 용어정의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이루어지고 복제와 삭제 등이 가능한 것. ■ 정형화 된 틀처럼 제어된 데이터 작업을 통한 한 번의 작업, 기계 주의적 딱딱한 모습과 차가운 속성, 구조적인 것.
아날로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Nature), 정(情)을 느끼는 감성, 그리움, 정성과 노력 ■ 암시적이고 모호한 성격에서 나오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제하고 있으며, 인간적이고 따뜻함과 정겨움, 그리움의 정서를 포함.
디지로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적 구성요소 측면의 하이테크놀러지, 기술적 의미, 재질의 변화, 형태를 포함하는 디지털과 내적 가치 측면의 아날로그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 감성, 과거 향수의 정서, 손때의 정성스러움과 따뜻함이 담긴 복고 트렌드, 자연(Nature), 정(情)을 느끼는 감성 등 내면의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내추럴리즘, 인간적이고 따뜻함과 정겨움, 그리움의 정서를 포함한 아날로그적 감성의 융합 또는 결합을 나타내는 것.
디지로그 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인 하이테크놀러지의 디지털과 아날로그 감성의 극과 극의 이중적 결합의 중간단계, 역설적인(Paradox) 믹스, 상반된 요소의 결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

있으면서도 추억과 향수, 그리움 등 아날로그적인 정서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디지털 산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주체라는 사실을 염두 해 두었을 때, 기술과 감성을 병행하려는 시도가 계속 되어지는 한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⁷⁾ 디지로그 트렌드가 한때 열풍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Ⅲ. 디지로그(Digilog) 디자인

테크노 휴머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변에서 디지털이 아닌 것을 찾는 게 빠를 정도로 디지털 기계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디지털 산업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진화 또한,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가 하는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의 진화와 과정 속에는 '인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사회가 점점 더 하이테크화 되어 디지털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디지털에서 모자란 부분을 아날로그 감성으로 채워 주길 바라며, 더욱더 감성화 되는 경향을 보여 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이다.⁸⁾

이러한 경향으로 현대인들은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추억과 향수, 그리움 등 아날로그적인 정서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이 욕구를 충족해 주고 있는 것이 '디지로그'이다. 다시 말해, 디지로그란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의 합성어이며, 융합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디지로그 디자인이란, 디지털 기기에 아날로그적 정서를 융합 시키는 디자인 기법을 의미하는 것이다.⁹⁾

2011년 지식 경제부에서는 최근 '2011년 한국 산업계가 주목 해야 할 5대 디자인 트렌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서 디지털 기술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접목한 '복고 디자인' 즉, '디지로그 디자인'을 올해의 디자인 키워드로 예상할 만큼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과거의 클래식한 디자인이 새롭게 재해석 되어 클래식한 디자인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디지로그 감성의 디자인이 제품 및 광고, 영상예술 콘텐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으므로, 현 시대의 패

션, 제품디자인, 광고 디자인 및 예술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키워드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¹⁰⁾

1. 제품디자인

디지로그 컨셉의 제품들은 쉽고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는 편지함 뿐 만 아니라 아날로그기기의 손맛을 경험 할 수 있다.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뭔가 특별한 가치를 더 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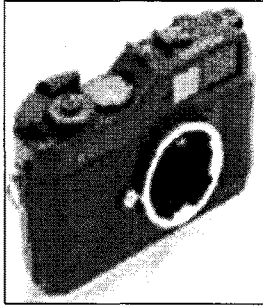
디지로그의 대표제품으로는 수동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이다. 필름 와인더를 감아줘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 '엡슨R-D1'은 수동카메라 '라이카'를 연상시키는 묵직한 검정색 외관에다 필름을 사용하지 않지만 사진을 찍을 때 마다 필름 와인더를 수동으로 돌려야한다.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렌즈가 작동하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와는 달리 렌즈 캡도 직접 열어야 사용 할 수 있다. 사용하기 불편한데도 아날로그적 감성 자극을 통한 디지로그의 표현을 추구하였다.¹¹⁾¹²⁾ <그림 1>¹³⁾

아이리버의 MP3P 스피너(SPINNP)에 탑재된 휠은 돌릴 때 마치 옛 전축을 조작하는 듯한 느낌을 UI(user Interface: 사용자환경)와 연계해 아날로그적 느낌을 더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 보면 FM라디오기능에 구형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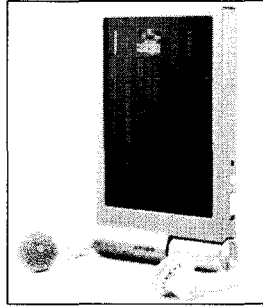
단순 MP3P가 아닌 사용자의 감성과 추억을 살려 현대의 기술인 디지털기술과 과거전축의 친근함과 조작느낌을 그대로 반영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 이른바 디지로그의 느낌을 살린 제품이다.<그림 2>¹⁴⁾

미국의 '애플(apple)'사 역시 현대기술에 촉음기모양의 미래형 레코드 플레이어와 과거향수와 아날로그적 감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디지로그 제품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 촉음기 형 증폭기는 이어폰을 켜서 Phonofone에 연결만 하면 이어폰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변해 바로 웅장하고 풍부하여 울림 좋은 소리로 전환된다고 한다.<그림 3>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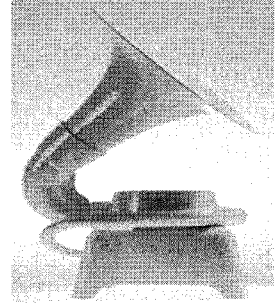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BMW의 '미니쿠퍼' 자동차는 과거 '로봇미니'와 닮은 앙증맞은



〈그림 1〉 엘스R-D1
<http://www.ebuz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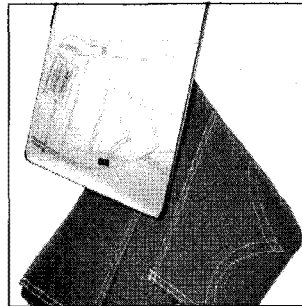
〈그림 2〉 아이리버의 MP3
 스피너(SPINN),
<http://www.ebuzz.co.kr>



〈그림 3〉 애플(Apple):
 미래형 축음기,
<http://www.NewLaunches.com>



〈그림 4〉 자동차에 디지로그를 입히다.
 BMW의 '미니쿠퍼'
<http://blog.naver.com/jman35>



〈그림 5〉 아날로그 브랜드와 콜레보레이션
 리바이스 청바지와 넷북의 만남
<http://blog.naver.com/kaonigovt>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동차 내부의 각종기와 작동장치를 아날로그 식으로 디자인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운전할 하면서 손맛을 느끼게 하도록 디자인하였다.〈그림 4〉¹⁶⁾

오랜 전통의 아날로그 브랜드와 새로운 디지털제품과의 만남으로 하나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한 경우도 또한 보여지고 있다. 청바지와 넷북의 만남, 넷북 상판에 리바이스 레드 탭과 갈매기 로고 디자인을 삽입, 청바지 천으로 넷북 보호주머니 제작하여, 디지로그 감성이 묻어나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선보여졌다. 〈그림 5〉¹⁷⁾

이상과 같이, 딱딱한 디지털제품과 따뜻한 아날로그 디자인과 콘텐츠의 결합으로, 사용자에게 첨단에 대한 낯설음과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휴머니티에 대한 그리움을 충족시킨 디지로그 제품은 포스트 디지털사회의 인간의 감성을 바탕으로 한 아날로그적 삶

이 더해 인간의 가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시에 새로운 소비문화를 리드하며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¹⁸⁾

2. 광고 디자인

광고 속에서 디지로그는 디지털에 아날로그적 정서를 융합시키는 감성 마케팅 기법을 접목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전에 보였던 감성 마케팅 기법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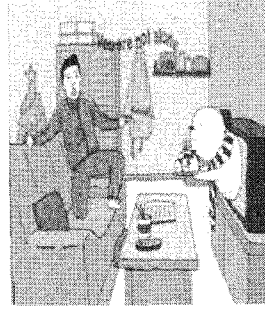
몇 년 전 모 이동통신사의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커뮤니케이션'이란 광고캠페인이 있었다. 이후에 '사람을 향합니다.'로 주제를 바꿔졌지만, 그 두 캠페인의 기저(基底)에는 공히 '따뜻함' '인간 중심' 등 '감성적' 색채가 흐르고 있다. 그 이동통신사는 휴대폰이 가지는 첨단성으로 인한 차가움 혹은 이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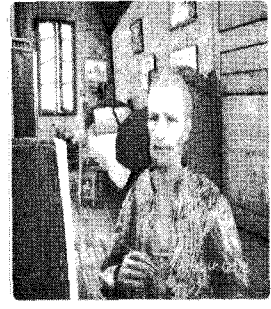
〈그림 6〉 SK텔레콤
‘사람을 향합니다.’편
<http://www.segye.com>



〈그림 7〉 SK텔레콤
‘북한화상전화’편
<http://news.naver.com>



〈그림 8〉 파리바게트
크리스마스광고 ‘You are not
alone.’- 4번째 솔로편
<http://choyan.com>



〈그림 9〉 LG기업 PR 광고-
‘고흐’편
<http://dibrary1004.blog.me>

인무드를 감성에 초점을 맞춘 광고 캠페인으로 보완해 소비자와의 친근감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그림 6〉¹⁹⁾

북한의 한 할머니가 휴대전화 화면을 말없이 바라본다. 화상 휴대전화 화면 속의 또 다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를 지그시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가 역시 축축하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느린 화면 가득히 그리움이 묻어난다. 몇 년 전 사람들의 마음에 여운을 남긴 SK텔레콤의 TV 광고 ‘북한 화상전화’ 편이다. 이 광고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추억과 향수, 그리움 등 아날로그적인 정서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7〉²⁰⁾²¹⁾ 이와 같이 이전의 감성마케팅 광고는 한국인의 대표 정서인 ‘정(情)’이라는 감성과 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최근 2010년 파리 바게트는 ‘You are not alone’이라는 문구로 4편의 크리스마스 광고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그 시리즈 가운데, 4번째 솔로 편은 남녀가 키스를 하는 장면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 솔로에게 눈사람이 TV에서 나와 솔로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내용이다. 아마도 한번쯤 경험해 보았을 법한 현실 공감형 마케팅에 많은 싱글들의 감성을 자극했었다. 또한, 눈사람의 포근함과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이 현대인들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따뜻한 감성을 느끼게 해주었다.〈그림 8〉²²⁾

LG의 기업 PR광고 ‘고흐’ 편에서 그림 속의 고흐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방 한구석 저 멀리보이는 빨

간색 우뚝 선 물건은 바로, LG전자의 에어컨이다. LG전자는 기업 PR광고로 몬드리안, 모네, 마티스, 반 고흐 등의 작품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감성을 터치하는 그림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전자제품 회사가 만나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 LG전자의 광고 명화시리즈 또한 광고 속에 또 다른 디지로그의 한 예로 보이고 있다.〈그림 9〉²³⁾

이처럼 한국인의 대표정서인 ‘정(情)’이라는 감성²⁴⁾을 내세우던 이전의 마케팅에서 최근 보이는 감성마케팅 광고는 누구든지 한번은 경험해보고 느꼈을 법한 현실 공감형 마케팅이 디지로그의 광고형태로 보여 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감성마케팅과의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4가지 경우의 광고는 사람의 머리가 아닌 마음에 호소하는 아날로그적 정서의 융합이 기본 바탕에 내재 되어있다는 공통점은 앞으로 디지털 속에서 찾을 수 없는 따뜻한 인간미, 감성들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시 찾게 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⁵⁾

이상에서 제품 및 광고디자인을 통해 ‘디지로그’의 활용사례를 살펴 본 결과, 포스트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날로그적 감성을 잊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디지로그’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서 지속 가능한 트렌드로 현대인들에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디지로그(Digilog) 패션 디자인 분석

디지로그 패션 디자인이란 극과 극이 이중적인 결합의 중간 단계의 표현, 즉 역설적인(Paradox) 믹스와 상반된 요소의 결합을 나타내는 것을 '디지로그 패션'이라고 정의 한다. 예를 들자면, 가공되지 않는 원시적, 자연적 소재로 표현을 하고자 하이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거나 외관은 아날로그적 감성인 네이처(Nature)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부를 러빙이나 왁싱, 디지털 프린팅(DTP)등의 하이테크놀로지를 써서 상반된 요소의 결합으로 만들어 지는 것들이 보이고 있다.

세계 4대 여성복 컬렉션을 통해 이를 수집한 뒤 외적 표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내적의미를 도출하였다. 2006년에 디지로그의 용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패션에 디지로그 컨셉이 보이는 것은 2008년부터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 조사의 범위는 2008년 S/S이후부터 2010년 S/S시즌까지로 한정하였다.

1. 디지로그 패션의 외적 표현

1) 역설적 표현의 소재

디지로그 패션은 하이테크놀러지(디지털)와 네츄럴리즘(아날로그)의 양극화 된 것들의 믹스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소재의 표현방법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이테크놀러지를 이용하여 가공하

지 않은 것과 같이 천연소재와 흡사하게 역으로 표현 한다거나 혹은 동, 식물의 실제 텍스처를 연출하기 위해 하이테크놀러지의 가공법을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이는, 과도한 디지털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연적 소재 표현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으로부터 평온함을 간접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10〉²⁶⁾은 하이테크놀러지의 가공법을 이용하여 실제 꽃의 텍스처감을 그대로 표현한 소재를 사용한 원피스 드레스 이다. 마치 부케(Bouquet)를 연상케 하는 의상이며, 〈그림 11〉²⁷⁾은 가죽소재를 화려한 광택이 살아있는 천연 실크 새틴 소재의 느낌의 원단으로 표현하기 위해 하이테크놀러지 가공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얇고 소프트한 재질로 연출한 아우터(outer)느낌의 가죽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 일반 천연소재처럼 보이는 원피스 의상이다. 〈그림 12〉²⁸⁾은 하이퀄리티(High Quality)의 원사를 사용하여 천연모피(Natural Fur)의 느낌을 표현한 원시적이고 가공되지 않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또한, 〈그림 13〉²⁹⁾은 자연을 열망하는 도시인들의 모험심을 반영한 듯 원시적 정글에서 영감을 얻은 듯 한 패브릭소재에 특수 가공처리의 하이테크를 믹스하여 Real Crocodile 가죽소재의 펜츠로 원시적 감성이 묻어나는 디지로그 패션을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Rock적인 요소를 페미닌(Femine)한 각도로 필터링된 독특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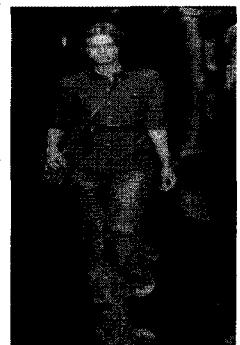
〈그림 10〉 John Roca,
London, 2008 S/S



〈그림 11〉 Bottaga Veneta,
Milano, 2008 S/S



〈그림 12〉 Burberry Prosum,
Milano, 2008 S/S



〈그림 13〉 D&G, Milano,
2008 S/S

는 Rock적인 요소는 디지털의 하이테크와 차가움, 구조적인 것으로 표현 되었고, 페미닌 요소는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연출되어져 디지털과 아날로그감성이 잘 조화된 디지로그 패션을 완성하였다.

2) 수공예적인 모티브(Handicraft Motif)

수공예적인 모티브의 사용은 디지로그 패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아날로그적 감성의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어린이들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 그림들을 하이테크놀러지의 디지털을 사용한 DPT로 프린팅하거나 아날로그의 손맛이 묻어나는 러프한 자수나 핸드페인팅(Handpainting) 같은 수공예적인 모티브(handicraft)를 표현하기 위해 하이테크 기계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14〉³⁰⁾는 붓의 러프한 터치감이 느껴지는 수채화 기법의 플라워 모티브를 실크 소재에 디지털프린트(DTP)로 작업하여 손맛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그림 15〉³¹⁾는 매화꽃과 같은 꽃 모티브를 미니드레스에 러프하고 입체감 있게 손으로 작업한 것처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손자수를 놓은 것과 같이 하이테크기계를 이용하여 연출하였다. 〈그림 16〉³²⁾에서 보이는 꽃 모티브는 홀로그램 3D효과를 활용한 디지털느낌과 아날로그적 감성의 자연물과의 조화가 마치 붉은 장미 꽃다발을 연상케 하는 작품이다. 〈그림 17〉³³⁾은 50년대 모던 페미니티와 바로크를 접목시킨 크리놀린 드레스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아티스

틱 터치의 핸드페인팅 DTP를 현란한 바로크풍 브로케이드 패턴으로 다채롭게 활용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를 이룬 디지로그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3) 네이처(Nature)감성의 디지털 프린팅(DTP)

포스트디지털시대의 기술발달에 대한 반향으로 정신적 피로의 누적된 인간들이 안락한 느낌을 느끼고,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연출 하고자, 아날로그적인 네이처감성의 자연물의 일부분을 극대화시켜 하이테크의 디지털프린트(DTP)를 사용하여 사실적인 형상으로 표현하거나 페브릭 전체에 자연물을 실사크기로 사실적이게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아날로그 감성과 하이테크놀러지의 디지털을 상반된 요소의 결합으로 감성적 균형이 느껴지는 디지로그 패션의 새로운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그림 18〉³⁵⁾에서는 네이처(Nature)감성이 와일드함이 느껴지는 스네이크 디지털 프린트(Snake DTP)를 쉬폰 소재에 프린팅 함으로써 와일드함이 느껴지는 스타일을 페미닌 레이어드 룩으로 로맨틱하게 연출한 의상이며, 〈그림 19〉³⁶⁾는 자연을 모티브한 네이처감성을 담은 듯한 프린트로 표현했으며,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듯하다. 또한,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는 수묵화의 먹의 농담기법을 하이테크를 이용 번지는 듯(Blurry)하게 DTP로 표현³⁷⁾한 것은 디지로그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림 20〉³⁸⁾에서는 클래식한 브리티쉬 아이덴티티와 하이테크 구조적인 디



〈그림 14〉 Aquas Cutum, London, 2008 S/S



〈그림 15〉 Alessandro, Dell'Acuqua, Milano, 2008 S/S



〈그림 16〉 Burberry Prosum, Milano, 2008 S/S



〈그림 17〉 Dolce & Gabbana, Milano, 2008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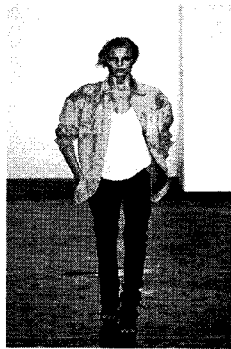
〈그림 18〉 Christopher Kane, London, 2008 S/S



〈그림 19〉 Alessandro Dell'Acqua, Milano, 2008 S/S



〈그림 20〉 Darks, Milano, 2008 S/S



〈그림 21〉 Alexander Wang, New York, 2009 S/S



〈그림 22〉 Lollipop Pt.2 (Digital Single), 'BIGBANG', 2010, <http://feelingchild.tistory.com>

지털감과 감각 있게 믹스한 형태의 의상으로, 불러 리한 플라워 디지털프린트(DTP)와 3D 텍스처 등이 다채롭게 선보여 신선함과 디지로그 감성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³⁹⁾

4) 80년대 스트리적 요소의 디테일 믹스(mix)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 불황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패션에서는 밝은 미래를 꿈꾸는 '낙천주의'를 표현하는 시도가 많아 졌다. 이것은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됐던 80년대와 지금의 불안한 경기 상황이 비슷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80년대의 패션을 예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80년대 스트리적 요소의 디테일을 믹스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보이고 있다. 이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고통을 화려한 옷차림 등으로 과거 에너지가 넘치고 부유했던 70,80년대의 향수를 다시 불러 일으키고, 그로 인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현실 도피적 과거 회귀의 경향 시도로 보인다.⁴⁰⁾ 힘들고 고달픈 현실을 화려함과 과장된 패션 등 역으로 낙천 주의적 표현 시도는 아날로그적 감성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듯하다. 또한, 두껍고 커 보이는 80년대의 의상 실루엣에 착시효과를 주어 부피감은 크면서도 가벼워 보이는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한 것은 하이테크놀로지(디지털)의 의복 구성법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림 21〉⁴¹⁾은 물 빠진 청바지와 크지만 각이 없이 둥근 어깨, 혈렁한 상의와 검은색 부티(Bootie)의 조화는 80년대 무드를 쿨하고 감각적으로 풀어냈다. 아날로그 감성의 '80년대 복고풍 패션'과 최신 트렌

드의 실루엣을 가장 이상적으로 믹스하고, 시장성 있는 현실적 디자인으로 표현 되었다는 점에서도 디지로그 패션의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보인다.

〈그림 22〉⁴²⁾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한층 화려해진 노랑과 파랑, 녹색, 분홍, 주황 등 밝고 희망적인 네온컬러를 사용한 컬러 블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구조적이고 차가운 디지털 감성이 묻어나는 의상에 힘든 현실을 화려한 컬러들을 사용한 아날로그적 감성이 조화롭게 믹스된 작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시적, 자연적 소재, 즉 아날로그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이테크놀러지를 사용하여 가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연출하는 역설적인 표현의 소재, 아날로그의 손맛이 묻어나는 러프한 자수와 같은 수공예적인 모티브(Handicraft)의 사용, 아날로그적 감성의 자연물을 일부분 또는 전체를 사실적인 형상 그대로 확대하거나 실사크기의 네이처(Nature)감성의 디지털프린팅(DTP), 80년대 스트리직 요소의 디테일 믹스(Mix)등의 표현은 인간적 감성과 하이테크기술의 조화, 감성적 균형을 이룬 디지로그 패션의 외적표현 형식으로 분류되었다.

2. 디지로그 패션의 내적 의미

1) 원시적 회귀(Primitive Recurrence)

기술의 집약적인 발전은 현대인들의 인간 중심적, 과거 회귀적, 자연회귀적인 성향에 더욱 주목하게 만들고 있으며, 하이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테크노 휴머니즘 시대의 환경은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제거한 반면, 가상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감정이 담긴 신체적 언어 즉 비언어적 요소의 부재 현상을 낳고 있다. 이른바 대면의 부재현상에서 오는 사회적 실체감의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회의적 의문과 함께 자연인으로서 인간에 대한 인식과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된다.

우리들이 한때 우리의 생활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 해주던 과거에 안전했던 것, 확실했던 것, 그리고 안락했던 것 등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모색은 인간 자체가 에너지가 되는 인간 본연 모습이나 원초적인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원시적 회귀 본능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⁴³⁾

꽃과 잡초 등 식물들이 근래의 수많은 컬렉션에서 빈번하게 등장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 된 것이다. 테크노 휴머니즘 시대의 네이처와 하이테크가 중심이지만 인간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이기 때문에 하이테크를 이용한 원시적 자연 소재가 패션과 인테리어 등 생활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패션에서 디지로그는 소재, 형태, 프린트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도 전쟁을 반대 하며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던 1960년대의 히피패션과 에스닉 룩을 통해서도 그 움직임을 엿 볼 수 있다. 이시기에는 대량 소비 시대가 본격적으로 가동 되면서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복고풍 재생품과 리스타일(re-stylizing)이 범람하기도 했다.⁴⁴⁾ 그러나 현대 패션에 표현된 디지로그는 단지 자연으로의 회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이테크의 힘을 이용하여 특수가공 처리한 원단이나 하이테크놀러지의 DTP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의복에 디지로그의 감성을 가미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원시적 느낌의 자연 소재 등을 사용한 수공예적인 표현 방법이나 자연 현상을 반영한 프린트나 색상으로 디지로그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서 더 편안하고 완벽한 질서를 찾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원시적 회귀 현상을 의복에 반영하고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표현들은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테크노 휴머니즘 시대의 기계, 기술의 발전과 차가운 세대에 대한 반항은 인간 스스로가 에너지가 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이 나타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의 원시적 회귀 본능을 일깨우고 있다.

2) 현실 도피적 과거 회귀

우리 모두가 할 수 만 있다면 오래도록 과거를 잡

아메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나이에 대한 고정 관념과 그 한계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세월을 되돌리거나 적어도 느리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본능은 과거의 행복하고 천진난만했던 추억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을 의미하며, 원초적인 그리움을 이끌어 내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마음속에 있는 과거로의 향수를 일깨우는 것이다. 이는 친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최근 문화 전반에 걸쳐 잊었던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복고 문화가 대두되고 있고, 아날로그의 회귀, 디지털의 모습도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현재, 힘들고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패션 또한 에너지가 넘치고 부유했던 70,80년대의 향수를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마돈나, 플래쉬 댄스, 폐임의 경쾌한 이미지와 스포티한 유틸리티 디테일 등이 보이고 있다. 또한, 엷지있는 숄더 패드, 오버사이즈 재킷과 쇼츠 팬츠를 기본으로, 컬러 블록, 네온 컬러, 점프 수트, 워싱턴 배기 데님 팬츠 아이템 등 80년대의 스트리직 요소를 믹스한 디테일등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⁴⁵⁾

이러한 과거회귀 열풍의 근원에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21세기 휴먼 테크노 시대에 대한 거부감과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걸으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대중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대중들이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아름다운 추억에 몰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식은 단순히 과거의 재현이 아닌, 과거를 현재로 해석하는 몸짓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표 2>로 정리 하였다.

V. 결론

삶에 더 많은 하이테크를 도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감성적 균형을 찾게 된다. 이것은 두 가지 별개의 충동을 균형 잡는 차원을 넘어 기술과 문화의 조화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에서도 나타나는데, MTM(made-to-measure)형 의복, e-테일러, 웨어러블 컴퓨터 등의 등장에 의해 오히려 인간적인 감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인간적 관점에서 기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기 보다는 인간적 감성과 하이테크 기술의 조화를 고찰할 필요성을 느끼고자 한다.⁴⁶⁾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디지털로가 반영된 패션디자인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원시적, 자연적 소재, 즉 아날로그적 표현하고자 하이테크를 로지를 사용하여 가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역설적인 표현의 소재, 손맛이 묻어나는 러프한 자수로 표현한 수공예적인 모티브(Handicraft), 네이처(Nature)감성의 디지털 프린팅(DTP) 넷째, 80년대 스트리직 요소의 디테일 믹스(mix)등이 보이고 있다.

위의 분석을 도출한 결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디지털의 내적의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평온함을 찾기 위해서 원시적 회귀를 주장하고 네이처와 하이테크를로지의 융합을 반영하

<표 2> 디지털 패선의 내적의미와 외적표현형식

외적 표현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설적 표현의 소재 ■ 네이처(Nature) 감성의 D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공예적인 모티브 ■ 80년대의 스트리직 요소를 믹스한 디테일
내적 의미	<p>원시적 회귀 (네이처 감성의 디지털로)</p>	<p>현실 도피적 과거 회귀 (과거의 향수 추구적 디지털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에 대한 인식과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동경 ■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편안함과 완벽한 질서를 찾고자 하는 욕망 ■ 네이처 감성의 반영과 수용을 통한 마음의 안락함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80년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 ■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힘들고 고달픈 현실의 회피 ■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의 원초적 그리움을 이끌어 내어 인간의 감성 자극을 통한 정서적 안정 추구 ■ 경기 침체의 확산으로 대중들의 불안 심리 작용에 의한 과거의 추억 몰입을 통한 복고 문화 대두

고 수용하는 자세이다.

둘째, 에너지가 넘치고 부유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과거의 회귀를 통해 어려운 현재, 힘들고 고달픈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하이테크 반향으로 나타난 디지로그가 현대 패션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 되고 있으며 그 안에 담긴 내적 의지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결국 21세기 문화의 흐름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 개개인의 정신적인 만족과 감성을 중시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흐름은 미래패션에서 나타나는 디지로그 현상의 분석을 통해 패션 싸이클에서 모호한 믹스 현상을 신종용어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과 2010년 이후 신종 컨셉이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로그'의 정의를 내려주고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 디지로그가 현대패션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미래패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조혜린 (2008). *디지로그 시대의 화조화를 응용한 패턴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 2) 유영만 (2002). *아나디지다*. 서울: 한언.
- 3) 전진영 (2008). 미래도시의 세가지 키워드. *질서와 창 의*, 창간호, p. 60.
- 4) 조현정 (2001). *디지털패러다임과 아날로그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민경우 (1995).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p.40
- 6) 디지로그 산업의 부흥 기술과 감성 만나 돈 만든다 (2007. 5. 8). *이코노미스트*, p. 32.
- 7) *위의 책*, p. 35.
- 8) *위의 책*, p. 32.
- 9) 이동연 (2007). *알면 돈이 보이는 소비 트렌드*. 서울: 비즈&리빙, p. 151.
- 10) '2010년을 이끌어갈 디자인 트렌드는 바로이것!' (2011. 1. 14). *SP투데이*. 자료검색일 2010. 1. 15, 자료출처 www.sptoday.com
- 11)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 디지로그, 첨단에 감성을 입히다 (2006. 1. 24). *주간한국*, p. 38.
- 12) 이해준 (2006). *디지털 제품에서의 아날로그적 감성디자인 요소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7-70.
- 13) 자료검색일 2010. 12. 20, 자료출처 www.ebuzz.co.kr
- 14)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www.ebuzz.co.kr
- 15) 자료검색일 2010. 12. 20, 자료출처 www.Newlaunches.com
- 16)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jman35
- 17) 자료검색일 2010. 12. 20,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kaonigovt
- 18) 강현정 (2007).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감성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25.
- 19)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www.segye.com
- 20)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0192097
- 21) 이연수 (2006. 3). 2006년 주목할 감성 마케팅 키워드. *유통저널*, p. 77.
- 22)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http://choyan.com/281
- 23)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http://dibrary1004.blog.me/30076615214
- 24) 최상진 (2002).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25) 박원정 (2007). *디지털편집디자인에서 목관인쇄의 이미지를 응용한 아날로그감성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17.
- 26) 2008 S/S Women RTW. John Roca.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
- 27) 2008 S/S Women RTW. Bottaga Veneta.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
- 28) 2008 S/S Women RTW. Burberry Prosum.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
- 29) 2008 S/S Women RTW. D&G.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
- 30) 2008 S/S Women RTW. Aquas Cutum.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
- 31) 2008 S/S Women RTW. Alessandro Dell'Acuqua.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
- 32) 2008 S/S Women RTW. Burberry Prosum.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
- 33) 2008 S/S Women RTW. Dolce & Gabbana.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
- 34) 노영화 (2007). *원근법형성과 디지털시대 디자인에 있어서 해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75-77.
- 35) 2008 S/S Women RTW. Christopher Kane.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
- 36) 2008 S/S Women RTW. Alessandro Dell'Acuqua.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
- 37) 전재훈 (2010). *문화연구 시각에 의한 현대 패션의 디지털 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30.
- 38) 2008 S/S Women RTW. Darks.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

- 39) 전지현 (2007).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디지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6-59.
- 40) 문화 Cycle과 가치의 변화 (2009. 3. 6). *삼성 디자인*. 자료검색일 2010. 12. 2.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
- 41) 2008 S/S Women RTW. Alexander Wang.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www.samsungdesign.net
- 42) 자료검색일 2010. 12. 27. 자료출처 <http://feelingchild.tistory.com/67>
- 43) 박원정 (2007). *앞의 논문*. pp. 14-17.
- 44) 코디최 (2006). *20세기 문화 지형도*. 서울: 안그라픽스, p. 126.
- 45) 문화 Cycle과 가치의 변화 (2009. 3. 6). *앞의 사이트*
- 46) 김보영, 금기숙 (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하이터치 (High Touch)에 관한 연구. *복식*. 58(4), p. 84.